

석고보드시장 가열 조짐

금강 1200만평 증설, 동부화학 신규참여 준비

건축경기의 전반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요증가를 보이고 있는 석고보드시장이 대기업들의 대규모 신증설로 가열되고 있다.

최근 5~10%의 성장세를 보여온 석고보드시장이 앞으로 수요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금강이 1200만평의 증설을 단행한데 이어 동부화학이 94년 중반기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신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학은 그동안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대규모의 인산석고를 야적해왔으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의 처리를 두고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생산이 비교적 용이하고 시장성이 있는 석고보드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고보드 공급현황					(단위 : 만평, %)
구 분	1992	1993	증감률	1994(추정)	비 고
벽 산	1,150	1,200	4	1,300	93년7월 1200만평 증설 95년 1200만평 신설예정
금 강	950	1,000	5	1,100	
동 부 화 학	-	-	-	-	
합 계	2,100	2,200	5	2,400	

또 금강이 93년7월 기존 800만평 규모의 생산시설을 2000만평 규모로 증설함에 따라 공급과잉과 함께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석고보드의 수요는 93년 2200만평 규모로 91년 2100만평에 비해 5% 증가했으며, 94년에는 9% 증가한

2400만평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같은 성장세는 90년 1300만평, 91년 1800만평 등 10%의 증가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합판을 대체해 건축내장재로 꾸준히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생산현황을 보면, 벽산이 1300만평 생산능력으로 1200만평을 공급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강이 100만평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일반용·방수용·방화용·미장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용의 경우 9mm 기준으로 M2 당 3750~3800원이다. 최근에는 경기둔화와 경쟁심화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고보드는 비료공정에서 나오는 인산석고를 주원료로 생산되는데, 금강과 벽산은 남해화학, 진해화학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동부화학은 자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석고보드시장은 5% 내외의 수요증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부화학의 신규참여로 인한 경쟁과 공급과잉 등이 맞물려 가격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1994/7/4>